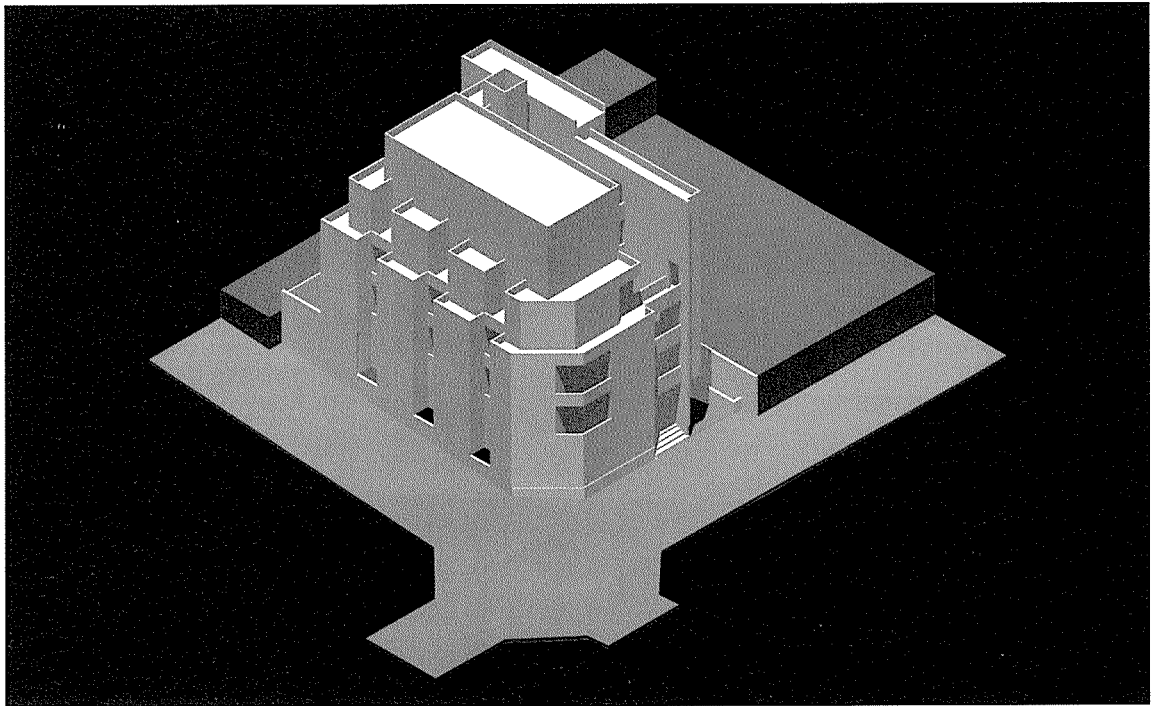


## 사주(四柱)

### Four Pillars

김인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arki움  
by Kim In-Cheul



무더웠던 여름 어느날이었다. 외출에서 돌아왔더니 P화랑의 P선생으로부터 급히 상의할 것이 있다는 메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진행중인 K화백의 양평아트리에 때문인가 하고 전갈을 넣었더니 불문곡직하고 생년 월 일 시를 음력으로 알려 달라 하였다. 의아해 하니 좋은 일이므로 그리 껄껄치 말라 하였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하였지만 실없는 농을 하는 분이 아니어서 다시 연락하겠다는 P선생의 전화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잠시 후 P선생은 압구정동의 찻집으로 급히 나와 달라 하였다. 마침 근처의 H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인테리어 작업도 돌아 보아야 하였으므로 군말 없이 다시 한강을 건너 갔었다.

찻집에서 P선생은 초로의 부인을 한분 새삼스럽게 소개하였다. 새삼스럽다는 것은 이미 구면이기 때

문이었다. 4월에 치렀던 우리집의 집들이 잔치에 P선생과 함께 들렀던 분이였다.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칭찬을 너무 받아 면구스러웠던 것이 기억에 남았고 당신도 일본 건축가 S씨와 강남에 지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하였었다. 기회가 되면 S씨에게도 이 집을 보여주어야 겠다며 귀찮아 말아 달라 부탁하였었다. 그 뒤 S씨의 출장 스케줄을 알려왔지만 서로 맞추어지지 않아 S씨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S씨는 다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으므로 그리 되어 만나면 재미있는 조우가 될뻔하였었다. 그분 L선생은 사람을 택할 때 꼭 사주를 본다 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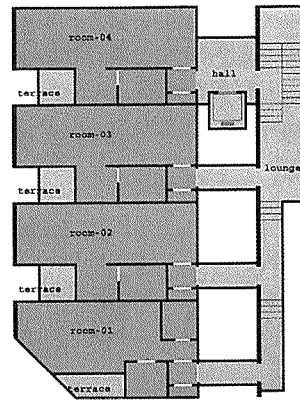
L선생은 S씨와의 작업이 여의치 않으니 그 일을 말아 달라 하였다. S씨는 우리의 건축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포기하였다고 하였다. 어떤 프로젝트였는

가 물었더니 다가구주택이라 하였다. 지구단위계획까지 겹쳐서 도대체 윤곽을 잡을 수 없다며 물러났다는 것이었다. 땀에는 그럴 법 하였다. 국제적 수준으로 자처하는 그에게 한국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시시콜콜한 제약들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을 것이 분명하였다. L선생의 땅은 논현동의 고급주택가에 있었다. 지역의 성격이나 자가 등을 고려하면 다가구주택은 어울리지 않았으나 L선생은 독신자를 위한 고급의 주거공간-말하자면 작은 아파트먼트 호텔 같은-을 구상하고 있었다. 집의 이름은 BOBOS로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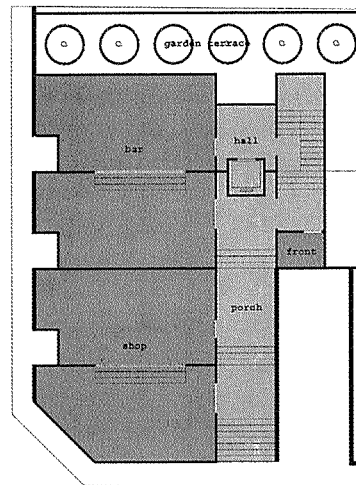
BOBOS는 bohemian bourgeoisies의 앞머리를 조합한 단어로 현대 도시인의 새로운 유형을 뜻하는 단어였다. L선생은 BOBOS라는 미국의 잡지를 펼쳐 보이기까지 하였다. S씨의 안을 설명하려는 것을 말리자 L선생은 아쉬워 하였다. 어떤 제안이었는지 호기심이 동하였지만 이왕 말한다면 나만의 생각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바쁜 P선생을 보내고 나서 찾아간 현장은 사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빈 땅이었다. 언덕진 큰길에서 골목길로 들어서는 어귀에 남쪽과 서쪽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전형적인 주택가의 필지였다. 평범한 장방형의 모양이었으나 북에서 남으로 높이가 2미터가량 낮아지는 레벨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동숭동과 청담동에서 여러 번 집짓기의 경험을 하였다는 L선생은 당신의 마지막 작업이 될지도 모르다며 좋은 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 하였다.

120여 평의 땅을 가득 채워야 하는 요구와 이리저리 억제하는 규제와의 다름을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는 없었다. 띄울 곳은 띄우고 남길 곳을 남기면 테두리와 덩어리는 절로 정해졌다. 공간을 나누고 동선을 잇고 면을 다듬으면 나머지는 기계적인 작업이 되겠지만 그토록 타당한 결과로 그토록 쉽게 마무리 짓기에는 스스로 마땅치 않았다. 그날 오후 대지를 살폈을 때 눈 여겨 보이던 높이의 차-비탈진 땅-을 그저 지나칠 수 없었다. 도시의 모습으로 덧씌워지기 전에는 양치바른 배나무 밭이었을 곳을 이제 와서 언덕으로 되돌릴 수 없겠지만 기억을 위한 장치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 작성하였다.

오르내리기가 일상이 되는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다. 오르막 길을 따라 단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어내는 안길을 만들었다. 남쪽 길에서 깊숙이 올라가 입구가 만들어지고 다시 오르거나 내려가 올라온 안길 위를 건너가면 따로 하나 하나인 집에 닿아 지도록 하였다. 밖 길과 안길 사이에 네 번의 단을 이루는 공간을 쌓았다. 각각의 단은 철저한 하나일 수 있고 이어지면 터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하였다. 어차피 보헤미안이므로 크게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었으며 더구나 부르주아이므로 서로의 관계는 선택의 사항이었다.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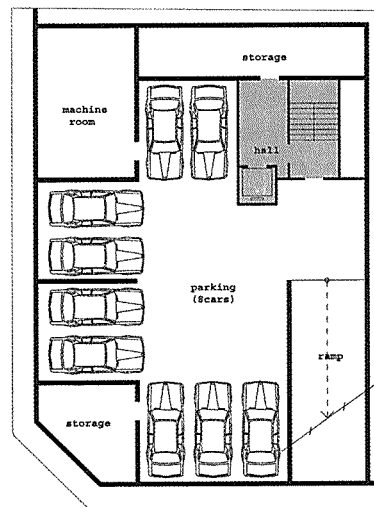


2, 3층



0 1 3 6

1층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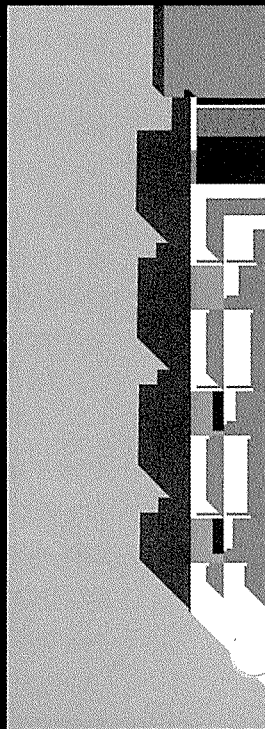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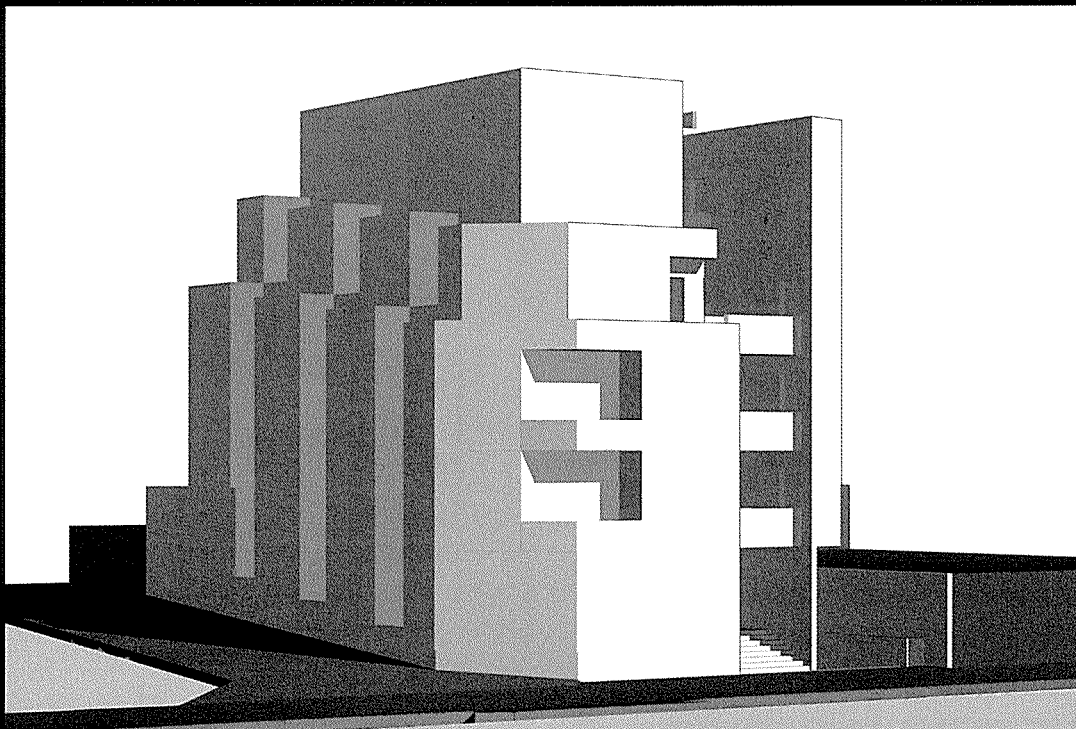
간은 포개어져 있지만 오르내리는 길은 열려 있어서 완벽한 개체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강화유리문과 수위가 지켜주는 것은 어설플 보호막이어서 현대적이지 못하다 생각하였다.

유니트는 되도록 단순하게 만들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배치이므로 안 길에 면한 동쪽도 막히어 서쪽만 열리는 형국이 되었다. 서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코니를 안으로 들어서 남향의 창을 만들었다. 이웃을 건너다 보려면 나와 서야 하지만 이미 배타적인 도시의 정황이었으므로 빛과 바람이 들면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욕실과 주방기구가 놓일 부분을 만들면 좁고 긴 공간이 남았다. 이런저런 가구와 공간을 예정하여야겠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다. 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 그만이었다. 건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방해 받지 않도록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어디에 무엇을 놓고 어떻게 쓸 것인가는 각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였다.

맨 위의 5층은 L선생의 거처가 되기로 하였으므로 사선제한의 한계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최대의 공간용적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바닥의 변화는 지붕에서 단순한 평면으로 정리되었다. 형태는 내용이 생겨진 대로 벽을 놓아

공간을 세우고 막을 곳과 열어야 할 곳을 정하면 만들어지게 마련이었다. 모양은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질감과 색을 쓸 것인가 걱정해야 하였지만 L선생의 예산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단순 명료한 것이라면 그만이므로 따로 상관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동쪽에 만들어지는 계단길이 무게를 덜어낸 모습이기를 상상하였으므로 그와 어울리는 몇 가지는 걱정하고 있어야 하였다. 콘크리트의 노출은 부분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목재와 메탈의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안이 정리되어 3D와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식구들에게 부탁하였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L선생은 제안설명을 들으며 매우 감동스러워 하였다. 따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S씨의 안보다 훌륭하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 주었다며 고마워 하였다. 집속으로 길을 내는 방안도 새로우며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 공간은 정말 근사할 것이라며 좋아하였다. 모형을 살펴며 감동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L선생의 반응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였으나 좀더 다듬으면 더욱 근사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으므로 드디어 나도 강남에 작업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서초동의 메스트론 이후 강 남쪽에서의 작업은 전무하였다.



L선생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제안서에 관심을 두기보다 도면과 모형의 구성구석을 살피며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감탄하였다.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하였다. 아드님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므로 상의하고 싶으니 갖고 가보여주면 어떤가 하였다. 이미 결정 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마다 할 이유가 없었다. 도면과 모형을 챙겨드리며 다시 한번 설계비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으나 P선생과 함께 한 자리에서도 이미 거론되었던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았다. L선생도 문제가 아니라는 듯 조정이 되겠지요? 하며 소중하게 도면과 모형 묶음을 받아 들었다.

P선생에게는 따로 연락 드리지 않았다. 두분의 친분이 각별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S선생이 만족해 하였으므로 나보다 그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오갈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운이 트였는지 신사동에도 일이 만들어질 듯 하였고 분당 건축주의 역삼동 프로젝트도 우리의 프로포절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왔으므로 한꺼번에 강남의 일이 겹쳐지게 되었다. 곧 결론을 전해 올 것이라 기대하였던 L선생의 소식이 늦어지고 있었지만 워낙 바쁜 분이니 기다리면 되리라 여기고 있었다. 보름이나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처음 떠오른 생각은 설계비를 제시했을 때 보였던 L선

생의 표정이었다. P선생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버릇처럼 되살아 나는 -프로젝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P선생은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차저차함을 알린 뒤 혹시 L선생이 예산의 문제로 망설이고 있다면 제시한 것의 절반인들 상관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 달라 하였다. P선생은 몹시 미안해 하며 제대로 중매를 하겠노라 다짐해 주었다. 그 뒤에도 소식은 오지 않았다. 다시 두 주일쯤 되었을 때 L선생의 기사가 케익 한 상자와 모형을 돌려주고 갔고 실장과 통화한 L선생은 미안하게 되었다며 누구인가와 하기로 하였으니 없었던 일로 하자 하였다는 결과만 전해 들었다. 궁금해 하였던 P선생은 설계비중 일부라도 엄중히 청구하라고 재촉하였지만 망가진 모형이 보이지 않도록 치워버리는 일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렇게 한 여름 밤의 꿈으로 끝난 일이 새삼스러워지는 일이 있었다. P잡지의 9월호는 건축가 M씨의 특집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그의 작업에도 <BOBOS>가 있었다. "우리가 잠시 진행하였던 다가구 주택"이라는 주석과 함께…… ㉨

